

박용만 회장, 두산그룹 떠난다... “삼부자 모두 각각 독립”

두산경영연구원 회장 사임
장남 박서원, 업계 유망회사 육성
차남 박재원, 스타트업 본격 투자



박용만 회장.

고(故) 박두병 두산그룹 초대 회장의 5남인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전 회장이 두산경영연구원 회장을 사임하고 그룹을 떠난다.

두산그룹은 10일 “박용만 전 회장이 두산경영연구원 회장직에서 사임한다”며 “두 아들인 박서원 오리콤 부사장, 박재원 두산중공업 상무도 ‘전문 분야에 맞는 커리어를 위해 그룹 임원직에서 물러난다’고 박 전 회장이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서 이사장을 맡고 계신 재단법인 ‘같이 걷는 길’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소외계층 구호사업 등 사회에 대한 기여에 힘쓸 것이라

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박 전 회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퇴진 소식을 전했다. 그는 “아들 둘이 다 독립을 하겠다고 했다. 부모로서 내 역할은 여기까지가 맞는 일이다”며 “나도 연초부터 공언한 대로 그룹의 모든 자리를 떠나기로 했다. 그룹의 실무를 떠난 지는 이미 오래됐고 상징적 존재로 있던 자리까지 모두

떠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두산을 떠나는 것이니 나도 독립이다”며 “이제부터는 그늘에 있는 사람들 더 돌보고 사회에 좋은 일 하며 살아가기로 했다. 삼부자 모두가 각각 독립하는 셈이다”라고 덧붙였다.

박 전 회장은 본인이 회장과 이사회 의장을 맡았던 두산인프라코어가 올해 8월 현대중공업그룹으로 매각되면서 그룹 쪽에 모든 직책에서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계속해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분야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장남 박서원 부사장은 두산그룹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관련 업계에서 유망 회사들을 육성하는 일에 이미 관여하고 있었다”며 “이제 본격적으로 관련 사업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차남인 박재원 상무 역시 “스타트업

투자 사업을 본격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전해왔다. 박 상무는 두산인프라코어 재직 당시 미국 실리콘밸리에 스타트업 투자를 위한 벤처캐피탈 회사 설립을 주도하는 등 관련 사업에서 성과를 내왔다. 1955년 박두병 두산그룹 초대 회장의 5남으로 태어난 박 전 회장은 서울대, 미국 보스턴대 경영대학원을 거쳐 지난 2012년 ‘형제경영’ 전통에 따라 박용현 회장의 후임으로 두산그룹 회장에 올랐다.

하지만 박 전 회장은 2005년 당시 형인 박용오 전 명예회장이 박용성 회장과 자신을 상대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검찰에 진정서를 내면서 한차례 ‘형제의 난’을 겪었다. 박용오 전 명예회장은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2012년 두산그룹 회장으로 취임한 박 전 회장은 취임 후 4년 뒤인 2016년 3월 조카인 박정원 현 회장에게 그룹 총

수직을 넘겼으며, 이때 두산그룹의 3세 경영도 막을 내렸다.

이후 박 전 회장은 2013년부터 맡았던 대한상의 회장과 두산인프라코어 회장으로 활동했다. 하지만 올해 3월 대한상의 회장 임기가 끝나고, 이어 8월에는 두산인프라코어가 현대중공업그룹에 매각되면서 공식 직책은 두산경영연구원 회장직만 남았었다.

박 전 회장이 올해 중순께 서울 약수동에 개인 사무실을 마련하면서 그가 그룹과 관계없는 사회공헌활동을 할 가능성은 미리 예고됐다. 박 전 회장은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젊은 직원들과 스펀지처럼 어울리는 소탈한 경영인으로 정평이 났다. 또 국내 기업인 중 SNS를 통해 쌍방향 소통에 주력했으며, 평소 과도한 의전은 생략하는 소탈하고 실용적 경영 스타일을 추구했다.

/양성문 기자 ysw@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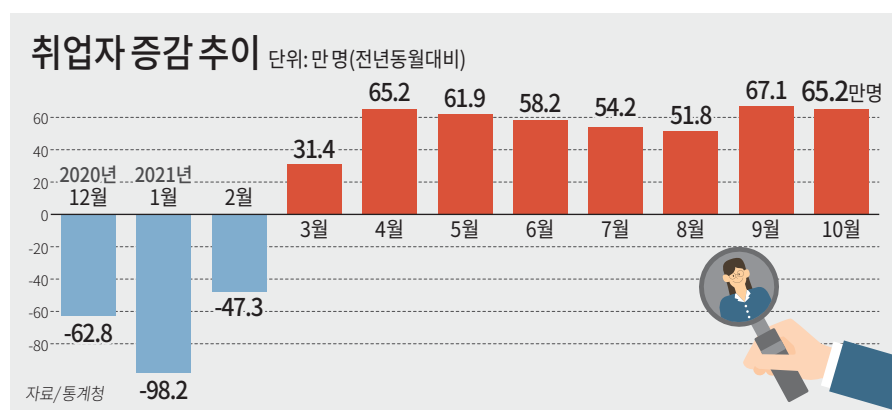
취업자 두달째 60만명 ↑... “코로나 이전의 99.9% 근접”

통계청, 10월 고용동향
취업자수 2774.1만명... 2.4% 증가
비대면·디지털 전환, 수출호조 영향

보건·사회복지, 운수업 등서 증가
자동차 등 제조·도소매업은 감소

취업자 수가 두 달 연속 60만명대 증가 폭을 이어갔다.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비대면 디지털 전환,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고용이 점차 회복되는 모습이다. 정부는 취업자 수가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에 99.9%까지 근접했다고 평가했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취업자 수는 2774



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5만2000명(2.4%) 늘었다. 9월(67만1000명)에 이어 2개월째 60만명대 증가 폭을 보였고, 지난 3월(31만4000명)부터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취업자 수를 업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30만명), 운수 및 창고업(16만3000명), 교육서비스업(10만8000명) 등에서 증가했다.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이 1년 전보

다 2만2000명 늘어나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다.

반면, 산업의 중추인 제조업은 지난 달 1만3000명 감소하며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자동차와 섬유제품,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등에서 감소한 영향이 컸다.

도소매업(-11만3000명)과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5만7000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3만3000명) 등도 감소했다.

연령대로는 60세 이상 고령층이 35만2000명으로 취업자가 가장 많이 증가했고, 20대(16만8000명), 50대(12만4000명), 40대(2만명) 등도 늘었다. 다만, 청

년 취업자가 다수인 30대는 2만4000명 감소했다. 지난해 3월부터 20개월째 감소세다.

코로나19 이후 고용 구조 변화로 자영업자들의 명함도 엇갈렸다.

나홀로 사장인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지난 달 4만5000명 늘어나 2019년 2월부터 33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2만6000명 줄어들며 2018년 12월부터 35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인 전체 고용률은 61.4%로 전년보다 1.0%포인트 상승했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은 2.8%로 전년보다 0.9%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달 실업자는 78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만1000명 줄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온·오프라인 맞춤형 개인쇼핑몰 창업

창업비용 99만원

나만의 맞춤형
개인 쇼핑몰 제공 평생 수익 창출

200여개 홍삼제품
+3만여개 인기상품
+자체상품 등록 판매가능

25년 역사 브레인 TV 방송국소유 핫터그룹

대한홍삼주식회사/㈜핫터라이프 T.010-4480-0045

셀트리온, ‘코로나 항체 치료제’ 이르면 이번주 내 유럽서 승인

유럽의약품청 CHMP서 결정키로
승인면 3개월 이내 판매허가 결정

유럽에서 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렉키로나’ 허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르면 이번 주 내 판매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유럽 언론 등에 따르면 렉키로나는 8~11일 중 열리는 유럽의약품청(EMA)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 회의에서 유럽 승인 권고 의견을 획득할지 여부가 결정된다.

EMA는 이번 CHMP 회의에 렉키로나와 함께 로슈-리제네론의 또 다른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로나프레브’에 대한 시판 허가 평가 안건을 승인 권고 의견으로 상정한 바 있다. 현재 유럽에서 판매허가를 받은 코로나19 치료제는 길리어드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가 유일하다.

CHMP는 의약품에 대한 과학적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허가 여부를 논의

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그 의견을 제시하는 기구로, EC는 CHMP의 권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판매허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유럽 현지 언론 등은 로이터 통신을 인용해 셀트리온의 렉키로나가 유럽에서 공식 승인되는 최초의 항체 치료제가 될 것이라고 봤다. 또 밝혀지지 않은 소식통을 통해 EMA가 이번주 안에 렉키로나를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셀트리온은 지난 달 EMA에 렉키로나에 대한 정식 품목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EMA는 지난 2월 말부터 임상이 진행 중인 렉키로나에 대한 롤링리뷰(허가신청 전 사전검토 절차)를 시작했다. 렉키로나의 적응증 대상은 코로나19가 확진된 만 18세 이상 성인 환자로, 보조적인 산소 공급이 필요하지 않으며 중증으로 이환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환자다.

/이세경 기자 seilee@